

[목회자 모임] 나는 누구인가?

2019. 2. 1. 이현래 목사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난주에 ‘길을 묻는 카페’에서 김*근형제가 ‘뇌 과학으로 본 인간’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뇌 과학으로 본 인간’은 어떻게 들으면 아주 충격적인 제목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그냥 뇌의 활동이다. 뇌세포가 작용하는 것이 전부라는 이론이다. 왜냐하면 울고 웃고 하는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은 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뇌에서 모든 행동을 다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마저도 뇌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생활을 전부 뇌세포에서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뇌 과학의 연구이다.

이것을 들으면 ‘인간은 어디 있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중국에서는 일체주의라고 해서 몸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사상이 중국 사상이다. 몸 외에 신은 없다. 몸이 전부라는 것이 중국 사상이다.

반면에 인도의 불교 사상은 식계, 즉 우리가 의식한다는 이 세계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다. 뇌 과학과 비슷하다. 똑같다. 사람의 식(의식)의 단계를 처음에는 8식인가 하다가 지금은 72식 정도이다. 의식의 단계를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연구했다. 지금 뇌 과학은 해부학적으로 기반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이고, 인도에서는 인간 심리학을 가지고 인간을 분석해 놓았다.

인도 불교는 무엇을 찾는 것인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찾는다. 모든 식이 다 움직이는데, 있기는 있지만 있다가 없고 하는데, 그중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어떤 환경에도 움직이지 않는 그것을 찾는 것이다. 진여심이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바닷물이 겉에는 요동을 치지만 속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을 찾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사물이 다 정상으로 보인다. 파도치는 데서는 정상으로 볼 수가 없다.

진여심 혹은 반야라고도 하는데 그 말이 다 그런 말이다. 거기서 보면 모든 것이 사실대로 보이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다. 그 지혜를 찾고 있다. 모양은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은 달라도 결국 원리는 같은 것이다.

인간의 과학은 뇌를 탐색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것을 탐색하는 것이다. 마음 중의 마음을 찾는 것이다. 자연히 불교는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의식할 때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의식하지 못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서양철학에서는 ‘코기토 에르고 슴(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그것이 기점이 되어 근대 철학이 등장한다.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양 철학은 바깥의 것을 추구하다가 내면의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고 한다.

이것이 모두 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연구를 했겠는가?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다 맞는 것이다.

김*근형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없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찾아봐도 없다는 것이다. 세포가 움직이려면 사령탑이 있어야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니까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디 있는가? 찾아봐도 없다는 것이다. 없는 것이 당연하다. 과학적으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없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무상이라는 것이 결국 ‘나는 없다.’는 말이다. 전부 인연이다. 어떤 인연으로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다. 전부 인연이다. 인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한 인과법칙만은 아니다. 우주생성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인연으로 한다. 결국 사람도 인연이라는 것이다. 어떤 인연으로 발생하는 것이 의식이고 생각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 있는가? 이런 문제가 알고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더구나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것이 거기에는 없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없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기독교도 헛갈릴 수 있는 것이 예전의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2:7).”라고 번역했다. 그러면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산 혼’이라고 한다. 히브리어로 혼은 ‘네페쉬’이고, 영은 ‘루아흐’이다. 영어로는 ‘Soul’이다. 영어성경은 다 ‘Soul’로 번역되어 있는데, 한글성경만 ‘생령’으로 번역했다. Living soul이다.

그러면 혼은 무엇인가? 이것을 영으로 착각하기 쉽다. 영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의 뇌에서 나온,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나는 산 혼을 사람의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정신적 기능이다. 지정을 내포하고 있는, 사람의 정신활동을 주장하는 혼이다. 혼이 사람 자체는 아니다. 사람은 혼을 통해서 표현되지만 그렇다고 혼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별로 문제가 안 되었다. 혼이 생명이 아니다. 혼은 누군가 지배해야 되는 것이지 혼 자체를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보면 혼이 바로 인간이다. ‘코기토 에르고 슴(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존재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요즘 말로 생각은 자기 자유라고 한다. 슬퍼하는 것도 자기 자유, 기뻐하는 것도 자기 자유,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것은 다 자기 자유이다.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 누구도 사람의 생각을 막을 수 없다. 그 생각을 막아버리면 존재를 막아버리는 것이니까 생각은 자유로워야 한다.

이 자유를 미국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제한을 하다가 18세가 되면 다 풀어준다.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한다.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혼란이 생긴다. 어디까지 생각하고 어디까지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불교에서도 문제가 왜 수양을 하느냐는 것이다. 이 생각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수양을 하는 것이다. 통제 없이 나오는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수양이 필요하다. 수양의 길이 생각을 사로잡는 길이다. 성경대로 말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후10:5).”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인생고이다. 집착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애착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모든 것을 다 무상하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다 끊는 것이다. 좋은 것도 끊고 나쁜 것도 끊고 다 끊는다는 것이다. 그것을 끊기 위해서 결국 수양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것이 쉽게

없어지겠는가?

어느 스님이 나와서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한 말과 똑같다. 너무 간단한 것이다. ‘진의심, 그것 하나뿐입니다. 참 마음, 그것 하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한다.

팔만법장이 심지일자라고 팔만 법이, 불교 진리가 마음 심자 하나라는 것이다. 들어보면 알겠지만 결론은 전부 마음이다. 불교의 모든 진리니 뭐니 하는 전부가 마지막에는 마음이다. 어떻게 보면 마음 다스리는 것이다. 불교에서 파생한 것들 가운데 마음 수련회가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음에서 실재가 아닌 것은 버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요즘 인기 있는 법륜스님의 즉문즉답은 사람들이 질문하면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는데, 그 대답이 간단하다. ‘나는 누가 밍습니다.’라고 하면 ‘미운 것이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미움이 원래 있습니까?’하고 대답한다.

어떤 자극을 받아서 생긴 것이지 원래 미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 원래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시어머니가 밍습니다.’라고 하면 ‘미움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습니까? 미움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하고 물어본다.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 어디 있다고 하겠는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 참 마음만, 진여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겠는가?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라고 말한다.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라고 마지막에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도로 아미타불이다. ‘그것이 그렇게 쉽습니까?’라고 하니 다 헛것이 되어 버린다. ‘반야심, 진여심을 찾으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보다는 내 말이 쉽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나면 간단한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습니까?’라고 하면 안 된다. 그것보다 쉬운 것이 없다. 나와 그 사람의 차이가 그것이다. 그 사람도 아주 쉬운 것을 말하고, 나도 아주 쉬운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마지막 말이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냐고 말한다. 나는 그렇게 말하려면 말을 하지 않는다. 가장 쉬운 것이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빼고 나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답이 없다. 불교가 뭐라 하든 진여심을 찾든지 간에 어떻든지 좌우지간에 답이 없다. 그런데

거기 가면 너무 간단하다. 눈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장대에 달린 구리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쳐다보면 산다는 것이다. 간단하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보냐는 것이다.

나는 기독교 2천년 사에서 이보다 쉬운 복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책을 다 못 봐서 누군가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 내려온 것으로 봐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이보다 쉬운 것이 있었다더라도 무시했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구절구절이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그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 절절히 그렇다. 십자가 빼놓고는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했는가? 그 안에 내가 못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는가? 이것이다.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은 알지만 내가 그 안에 있었는가? 이것이다.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서 죽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는 이것이 감상적인 문제이지 실제적인 문제가 안 된다.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구약시대에 제물을 제단에 바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약이다. 제물만 바뀌진 것이지 뭐가 바뀌졌는가?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 올린 것이고, 신약은 예수를 잡아 올린 것이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구약이 한 치도 발전하지 않았다. 그 말은 누구는 모르는가? 다 안다. 성경의 구절구절이 그것인데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되는가? 안 된다.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나도 그것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었다. 어떻게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자기가 무슨 죄인이어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나만 그런가? 알고 보면 다 그렇다. 다른 것을 죄라고 알고 가슴을 치는 것이지 자기 인생이 바뀌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보다 더한 복음은, 이보다 쉬운 복음은 지금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 굳이 왜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는가? 남이 안하는 소리를 왜 계속 하겠

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면 끝나는데 뭐 하러 다른 탄소리를 또 하겠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안 되어서 고민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됐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되어 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제 밤에도 생각했고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분들을 만났는가? 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복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떠나더라도 이 말을 할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한 일이다.

나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우리가 원위로 돌아가며, 예수와 연합이 되겠는가? 그 자리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와 연합이 안 된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금식을 천 날을 해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기도를 한다. 금식기도를 하면 어떠냐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먹을 것 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 주야로 먹을 생각밖에 안 난다는 것이다. 어렸을 때 먹었던 것, 보리떡까지 생각이 난다고 한다. 오로지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마음이 깨끗해진 것이다. 아무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식이 끝나고 물 먹기 시작하고 미음 먹기 시작하면 차차 차차 도로 생각이 난다는 것이다. 맨날 해도 도로 묵이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던 그때 그 기분이 자기 인생에서 너무 깨끗한 시간이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고, 또 복잡해지면 금식하는 것이다. 이런 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겠는가? 어느 종교인들 이런 것이 없겠는가? 다 있다.

내가 절에 가서 스님에게 들었는데, 일몰관이라는 것도 있고 면벽이라는 것도 있다고 한다.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일몰관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다른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해만 본다고 한다. 오래 하면 햇빛을 너무 많이 봐서 눈이 다 망가지는데 그것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면벽한다. 벽만 보고 앉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달마대사는 9년 동안 벽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아무것도 없는 벽만 본다. 이것이 전부 생각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고나면 사람이 달라져서 도가 통해서 둔갑을 한다는 것이다. 이 몸은 옷과 똑같다. 벗어 놓을 수도 있고 다시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절에 가면 어디든 대부분 다 있는 것이 달마스님 상이다. 눈이 크게 생긴 달마 상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왜 저렇게 생겼는가?’하고 묻게 되어 있다. 그 이유가 9년 면벽을 하고 세상에 도를 전하려고 나오는 길인데, 호수에 어떤 사람이 멍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악어가 쫓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모르고 멍을 감고 있으니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잠깐 자기 몸을 벗어놓고, 물에 들어간 사람을 구제하고 왔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가져가 버렸다는 것이다. 자기 몸을 입고 그 흉측한 몸을 놔두고 갔다는 것이다. 그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 몸은 자유롭게 벗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신기하기도 하고 신통하기도 하였다. 어떻게 하면 솔깃한 마음도 있었다. 스님이 나에게 입문해보지 않겠느냐고 슬쩍 이야기를 비추시는데, 내가 어려서 교회를 다녀서 불교는 우상숭배라는 생각이 속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안 빨려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빨려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불교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또 해가스님이라는 분이 있다. 보통 절에는 농악을 만들어서 정월에 동네에 내려가서 농악을 두드려서 동냥을 구해오는 풍습이 있었다. 농악대를 만들어서 나가는데, 해가스님이 문턱을 잡고 참선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해가스님에게 다녀오겠다고 하니 다녀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한 달 동안 농악대가 동네를 돌고 오니까 아직도 문턱을 잡고 있더라는 것이다. 문이 와서 이마를 찡어서 피가 나고 피가 굳어지고 있는데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해가스님에게 다녀왔다고 하니 ‘응?’하고 깨어나더라는 것이다.

그 당시 물이 다 차면 쿵 내려앉고, 물을 담으면 내려오는 물레방아가 있었는데, 스님의 참선을 깨지 않으려고 물레방아가 그냥 매달려있더라는 것이다. 물레방아가 그 물통을 매달고 있다가 ‘응? 왔냐?’고 하니 쿵 내려앉더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려준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절에 가니까 그런 것이 너무 많다. 나는 어렸을 때 기적은 하나님만 행하는 것이라고 알았는데, 절에도 기적이 있다는 것을 절에 가서 처음 알았다. 사람의 정신력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워치만니도 사람이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손을 대지 않고 책상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혼의 마력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정신력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되는 길이 있다고 하니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도 나는 다행히 어려서 교회를 가서 들어가지 않았다. 김천분인데 보길도 암자에 와있다.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다. 어떻게 절에 오셨느냐고 하니 독립운동을 하려고 중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계셔서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한문도 많이 공부하신 유식한 스님이셨다. 그분과 한 일 년을 같이 있었다. 불교에도 그런 기적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 않는다.

사람의 정신력이라는 것이 특이한 것이 있는 것 같다. 워치만니는 원래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만물을 다스리려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퇴화되어서 안 나타나는 것이다. 문명화되고 발전하니까 그런 정신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럴 법도 하다. 정신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 뇌 과학을 들을 때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불교를 들을 때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기독교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충격을 받을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나는 충격을 받을 일이 없고,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은 혼이다, 산 혼이라고 말했던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준다. 나는 손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도움이 되었다.

기능과 생명은 다르다. 예를 들어 기독교 안에도 이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것이 나는 그 사람 자체인줄로 처음에 생각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은사이다. 은사와 그 사람은 다른 것이다. 은사는 은사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과학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못 찾는 것이 당연하다. 못 찾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과학적으로 찾아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못 찾으니까 너무 다행한 일이다. 그러면 그렇지, 못 찾아야지, 누가 그것을 찾아내면 어찌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만물을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내가 마음 안에 있다고 했는데, 마음까지도 뇌 과학적으로 설명해 버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심장인지 머리인지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를 못 찾는다.

그런데 만물을 보면 전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아도 바깥과 꼭 연결되어 있다.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내 속에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이유가 있다. 우리는 산소를 호흡해야 산다. 산소 없이 못 산다. 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산소이다. 멀쩡한데 산소가 안 들어간다. 같이 숨을 쉬어도 나는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 밥을 먹지 않고 살 동물이 있는가? 음식을 먹지 않고 살 동물이 있는가? 음식은 밖에서 들어오지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고 가는 수가 있는가? 전기 들어가지 않고 가는 수가 있는가?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가면 운전사 없이 가는 수가 있는가? 요즘 운전사 없이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까지 실용화되고 있다고 한다. 승용차까지는 못하고 있고, 대륙을 횡단해서 짐을 싣고 가는 큰 트레일러와 같은 차들이 있는데, 고속도로를 며칠씩 가니까 그런 차는 무인차가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큰 차들은 무인차로 간다고 한다.

LA에 있는 한 형제가 전자공학계통으로 연구 분야가 그런 센서 분야인데, 그 센서가 다 갖춰지지 못해서 승용차는 잘못하면 위험하다고 한다. 50cm 안은 감지가 안 되는가 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머지않아 무인차가 가게 되면 기계로 조정하고 센서로 조정하니까 교통사고는 훨씬 덜 날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누가 조정해주어야지 조정을 하지 않고 가 갈수는 없다. 사람이 만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것도 똑같다. 어느 것도 스스로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몸을 연구해 놓은 것이 뇌 과학이라고 한다면 나를 움직이는 것은 다른 데 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지 않은가? 내 생명은 나한테 있지 않다.

아담은 분명히 산 혼이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가 아담이 된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인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을 것인가? 왜 그것을 두었는가?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다. 아담이 먹을 양식은 창세기 2 장에 보면 그 과일 밖에 없다. 아무 것도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아담은 그것을 먹고 산다는 말이다. 둘 중에 하나만 먹고 산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소위 타락한 인간이 된 것이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지어놓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엉뚱하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오히려 사탄과 연결되어 버렸다.

여기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본래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구속이다. 구속이라는 말이 출애굽부터 나왔을 것이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인데 바로의 백성이 되었다. 바로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되돌리는 것이 구속이다. 애굽 땅에 있던 것을 광야로 내놓은 것이 1차적인 구속이다. 원 위치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 복음의 목표는 사람을 원위치로 바꾸는 것이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일이다. 구속, Redemption은 원위치로 바꾸는 것이다. 위치만 알면 바꾸면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라는 막연한 말로 이것을 대치해 왔다.

죄를 느끼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죄를 못 느끼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흔적이 없다. 요즘 구원파 계통의 사람들을 만나면 죄부터 이야기한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메시지이다. 이 말을 듣고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된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구원이다.

그런데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고, 온갖 죄를 다 꺼내서 이런 죄도 짓지 않았느냐, 저런 죄도 짓지 않았느냐고 한다. 우리 교회 오셨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어떤 자매가 있다. 그 자매의 아버지가 뭔가 특이한 종교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절대로 나쁜 생각도 못하게 해서 한 번도 나쁜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처음 보았다. 어떤 전도사가 그 자매에게 와서 죄부터 이야기를 한 모양이다. 이 자매가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했더니 다음날에는 다른 죄를 꺼내어서 이런 죄가 없느냐고 한 것이다. 그런 것은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조르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 전도사가 그냥 갔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다 있다. 그런가 하면 간단한 죄만 이야기해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상한 일이다.

지금은 그 자매의 아들들이 우리 교회를 나온다. 옛날에 그 자매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와서 보더니 첫날 간증이 여기가 천국이라고 간증을 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교회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다.

죄 이야기를 할 때 감동을 받는 것도 여러 가지이다. 우리나라 전 총리가 어느 교회에서 한 자기 간증을 유튜브에 올려놓았는데 지금 한참 뜨고 있다. 10살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갈 필요도 없고 나갈 생각도 해보지 않았는

데, 누나가 사탕을 사 준다고 해서 갔다고 한다. 그런데 거기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 거기서 10살 학생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아주 착실한 신자이고,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기독교 신자이다.

침례교를 천막 시절부터 다녔다. 여러 가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데, 정말로 순진한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침례교는 상당히 보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시하지만 미국에는 거의 침례 교인이다. 신학교도 유명하진 않지만 가장 큰 신학교가 알고 보면 침례교 신학교이다. 인구가 많으니까 가장 학생 숫자가 많은 곳이 침례교 신학교라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10살 학생이 어떻게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자기는 그렇다고 이야기했다.

C.C.C.에서는 4영리를 가지고 전도를 가서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읽어주면 그 자리에서 울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자기가 어디서 이탈되었는지 알고 회개한 회개는 분명히 아니다. 자기 양심에 뭐가 막혀 있던 것이 생각나서 한 것이지 내가 어디 있었다가 어디로 떨어진 것인지는 모르는 것이다.

원죄라고 얼버무려 놓았지만 명백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원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지만 원죄로부터 구속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잘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의 문제도 없다. 관계가 좋으면 그만이다. 좋은 관계가 되는 사람들끼리는 별 짓을 다 한다. 관계가 나쁘면 죽이기도 한다. 그 사람들은 이렇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내게 생명주시는 분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기능이 다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울고 웃고 별 짓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나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소명이 생긴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명이 없다. 사명을 주시는 이도 없고, 우리가 받을 소명도 아무 것도 없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하는 것이 여기 오신 분들이 참 복된 분들이다. 우리가 참 복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동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전도를 한다면 이것이 보통일이 아니고 큰일이구나.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이 보통일이 아니로구나. 어떤 특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사령탑이 없다. 사령탑이 없으니까 누가 나에게 일을 맡기겠는가? 내 생각에 옳을 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에게 직임을 준 것이다. 너는 사람이다. 너는 나를 대신할 사람이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표현할 사람이다. 이 직임이 있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내 생명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다. 내가 숨을 못 쉰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잠을 못 잔다는 말이 아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내게 일을 줄 존재가 없다. 일이 없으면, 사명이 없으면 나는 죽은 것이지 산 것이겠는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노인들을 보면 안 됐지만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죽으면 안 되지만 저렇게 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저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보지 않겠는가?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존재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나님을 대신할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른다. 어디 가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하는 기회를 받는다면 그보다 더 축복된 기회가 없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놓치면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명이 없으면 인생이 없다. 그러면 누구를 미워할 겨를이 어디 있겠는가? 분노할 겨를이 어디 있겠는가? 분노한 것은 죽은 것이다. 미워한 것도 죽은 것이다.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할 짓이 못 되는 것이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요즘 보니까 감옥에 가는 사람도 많다. 멀쩡한 사람도 묶여간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 일도 아닌데 뒤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이다. 잘잘못은 고사하고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저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은 인터뷰할 수 있는 무슨 라인을 만들어 놓았다. 포토라인인가 하는데 기자

들이 질문하면 거기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뒤쪽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난리이다. 무슨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이 복잡한 세상에 이 귀중한 시간에 왜 할 일이 없어서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가 싶다. 옹고 그르고를 떠나서 딱한 것이다. 판사와 검사가 법으로 다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젊은이들이 따라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다. 속에 무슨 분노가 쌓여서 폭발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것을 만나니까 터지는 것 같다.

서러움이 있는 사람은 울 곳을 찾는다. 옛날 시골에 가보면 초상집에서 통곡하고 우는 할머니들이 있다. 돌아가신 분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인가? 아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냥 동네 할머니이다. 초상집마다 가면 통곡하고 우는 할머니가 있다. 이 할머니는 울 곳을 찾고 있는 것이다. 똑 같다.

옛날에 아주머니들이 애기를 업고 낮에 극장에 간다. 왜 가는가? 울려고 간다. 극장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실컷 울려고 간다. 거기 가서 자기 한풀이 하려고 간다. 시집살이 하면서 쌓인 한풀이를 어디 가서 하겠는가? 못하니까 극장에 가서 공감을 느끼면서 실컷 울고 오면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이다.

사회를 보면 뭐가 안 돼서 분노가 차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분을 터트릴 곳만 찾아다닌다. 그것이 너무너무 불쌍하다.

우리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임이 없으면 인생이 억울하지 않겠는가? 잘되면 모르지만 잘 안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내가 처음 영겁결에 신학교 갔을 때 나를 목회자로 쓰시려는가 보다하고 생각했다. 그것도 나에게서는 너무 감사했다. 그런데 뒤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목회자로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 자기의 대리자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불렀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목회가 목적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것이 끝나면 아무 것도 못 할 줄 알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못 할 줄 알았다.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더 큰 위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음을 맡은 일꾼이라는 것은 너무 귀한 직분이다. 하늘의 좋은 소식을,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지금 복이 없어서 분노하고 난리를 치는데 복을 전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욕만 하고 다녀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욕을 해도 시원치 않

으니까 그러는 것이다. 뒤에서 떠들고 소리 지른다고 시원해지겠는가? 그래서 또 다른데 가서 하고 일만 생기면 튀어 나온다. 불쌍하다.

우리는 일만 생기면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일이 있는데 마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여간 여러분이나 나나 복 받은 사람들이다.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다. 더 이상 다른 더 좋은 복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복 달라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남에게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는 여러분을 만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복되게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닌가? 나 혼자 다 전하겠는가? 전할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

여러분들은 모두 장교이다. 사병이 아니고 장교이다. 사관학교와 똑같다. 왜냐하면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장교이다. 죽을 사람을 살릴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간신히 진통제나 주는 의사를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하나라도 살리는 의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옛날에 산에 있는 암자에 있을 때인데, 아래 동네에 가서 약을 가져 오라고 연락을 한다. 무슨 약을 가지고 오길래 약만 가지고 오라고 하는가했다. 알고 보니까 아편이었다. 무슨 약이 있겠는가? 없으니까 임시로 키워서 엿처럼 까맣게 고체로 만들어 놓는데, 그것을 가져 오라는 뜻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솟수저를 닦아서 거기에 탈지면을 놓고 물을 끓여서 거기에 까만 것을 놓으면 녹는다. 그러면 탈지면 위에서 주사기로 뽑아서 주사를 맞는 것이다. 만병통치이다. 그것을 약이라고 한다. 약을 가져오라고 한다. 그렇게 의사 노릇을 하려면 쉽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하겠는가? 아편을 팔아먹는 놈들이라고 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천당 갈 것을 생각하고 웃고 있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한방만 제대로 맞으면 병이 완치되는 약을 주셨다. 이런 약이 개발되기를 지금 암을 치료하는 세계에서 고대하고 있다. 그 약이 없어서 지금 수 없는 사람들이 죽고 있다.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면서 문둥병은 완전히 없어졌다. 약은 딱 한 가지이다. 여러 가지 약이 아니다. 딱 한가지이다. 비싼 약도 아니다. 정제(DDS)

인데 그것만 먹으면 문둥병이 다 없어진다.

대구 근교에 신동이라는 곳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던 곳이다. 거기서 닭을 키워서 계란이 나온다. 거기 계란에 균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다. 지금은 문둥병 균이 없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나온 계란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 그 약 하나 때문에 문둥병이 없어졌다.

인생의 문제도 그렇게 간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온 인류가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하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아서 겨우 들어갈 사람이 몇 명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누가 거기를 들어가겠는가?

불교에서 나온 스님도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완전하게 간단한 것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 하나만 먹으면 만병이 통치되는 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모든 약의 약이고, 약 중의 약이고, 의사 중의 의사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어 보라. 무엇이든지 거기에 오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모든 것이 미완성이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자리가 없다면, 그 많은 축복이 알고 보면 내 것이 아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수박 겉핥기지 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 축복한 것이기 때문에 아들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임금의 것을 소유하려면 왕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함께 소유할 수 없다.

모든 결론은 다 예수 안으로 온다. 그분이 없으면 결론이 없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확신이 있다. 먹기만 제대로 먹으면 틀림없이 산다. 사람들이 경계하고 안 먹으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먹게 만드는가? 이것이 숙제이다. 그리고 또 이 약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가? 이것이 숙제이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은 분들이다. 그 자부심이 확실하게 생기길 바란다. 천하에 없는 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쉬운 예수를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믿었다. 너무 어려웠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기독교 안에도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도 많이 했다. 고행을 한 사람들이 얼마이고, 지금도 수도원에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오는 수도원도 있다. 대구에도 베네딕

트인가 하는 곳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한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예수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을 공짜로 얻었으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우리가 합해서 복음을 전하면 더 확실히 더 멀리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좋은 약을 두고 다른 것은 아무리 써도 안 되니까 안 되면 돌아올 것이 아니겠는가!

감사합니다.